발달장애인 치유농장 2호 개장

전주시, 대성공영주차장 인근 유휴 시유지 개간 맞춤형 텃밭 · 치유정원 등 조성

전주 북서부권 장동에 이어 남동부권 대성동에 발달장애인 치유농장이 문을 열었다.

전주 북서부권 장동에 이어 남동부권 대성동에 발달장애인 치유농장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발달장애인의 야외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성동에 조성한 치유농장을 지난 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추가 조성된 장애인 치유농장은 지난해 개장한 장동 치유농장에 이어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두 번째 치유농장으로, 대성공영주차장 인근 유휴 시유지를 개간해 맞춤형 텃밭과 치유정원 등을 갖춘 농장으로 조성했다.

이날 개장한 치유농장에서는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용민)이 발달장애인 등 30여 명과 함께 △맞춤형 치유농업 교육 및 체험활동 △직접 재배한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체험 △수확 농산물 전주푸드 납품 △직거래장터 부스 운영 등 치유농장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대성동 발달장애인 치유농장 조성 과정에는 '체험·치유·교육' 활동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 최규범 (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상임이사가 공간구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했으며, 최 상임이사는 매월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정기 원예체험 프로그램도 직접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성공영주차장 생태환경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20여 명으로 구성된 전주시니어클럽(관장 김효춘) 소속 '둘레길 은빛지킴이 사업단'도 발달장애인들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노인과 장애인이 치유농장관리뿐만 아니라 텃밭도 함께 가꾸며 서로 도와 배워가는 소통의 장으로 치유농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조성된 장동 치유농장의 경우 지난달 텃밭 재정비와 참여기관 모집을 거쳐 지난 5일 감자심기 체험을 시작으로 치유농장 활동을 재개했다. 장동 치유농장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주간활동센터·특수학교 등 12곳이 활동 참여를 신청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발달장애인들이 치유농장 활동을 통해 좀 더 편안하게 자연을 즐기고, 영농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분야의 다양한 경험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시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과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문화중심도시 이탈리아 피렌체서 전주 소개

피렌체 한국영화제서 홍보… 김승수 시장, 국제교류 · 전주국제영화제 발전 공로패 수상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개막한 피렌체 한국영화제에서 지역상품이 담긴 전주 굿즈백을 홍보하고, 전주 홍보영상 등을 상영했다.

코로나19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전주의 음식 등 문화관광자원이 이탈리아 대표 문화도시 피렌체에 소개됐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개막한 피렌체 한국영화제에서 전주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피렌체 한국영화제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한국 관련 영화제 중 가장 오래된 영화제이자 한국영화와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이탈리아 현지인과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역사 깊은 영화제이다.

시는 이 영화제에서 전주의 유과 등 지역상품이 담긴 전주 굿즈백을 홍보하고, 전주 홍보영상 등을 상영했다.

영화제 개막식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올해 15주년을 맞은 전주-피렌체간 국제교류와 전주국제영화제 발전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영화제 조직위로부터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시는 해외에서 한류 열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평소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영화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전주음식과 영화제 등을 홍보한 이번 활동이 향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가 진행되고 전 세계적인 관광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중심도시 피렌체에서의 홍보 선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홍보행사를 계기로 주요도시와 대면홍보 또한 더욱 다양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완산도서관, 스마트 K-도서관 조성 공모 선정

송천도서관에 이어 완산도서관에도 시민들에게 1인 미디어 제작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전용공간이 들어선다.

전주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스마트 K-도서관(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완산도서관이 선정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완산도서관에는 국비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이 투입돼 1인 미디어 제작·체험이 가능한 창작공간이 조성된다.

시는 완산도서관 1층 59㎡ 공간에 LED 조명과 배경 스크린, 방음시설을 갖춘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미디어 제작 관련 부대장비를 갖출 계획이다.

창작공간 조성 후에는 △지역 예술가 공연 콘텐츠 촬영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촬영 △콘텐츠 미디어 창작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되며, 1인 방송체험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돌봄 노인 500명에 마음치유 반려식물 보급

전주시가 통합돌봄 노인 500명에게 정서적인 지지 기반이 돼줄 반려식물을 보급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는 노령인구와 질병의 증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 해소 및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마음치유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반려식물'이란 기르면서 느끼는 행복감을 통해 심리적 건강유지와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물이다. 시는 양묘장에서 육묘한 식물 중 꽃이 피고 개화기가 길며 색감이 있는 초화류를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4월 한 달 간 시민을 대상으로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빈 화분을 수집할 계획이다.

시는 참여한 시민들 중 직경 20㎝ 정도의 플라스틱 재질을 제외한 토분이나 도자기 재질의 화분을 2개 이상 기증할 경우 채소종자 1봉을 제공해 나눔 활동은 물론 자연스럽게 도시농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수집된 화분은 시니어 텃밭 관리사의 손길로 세척과 소독을 거친 후 반려식물 나눔 용도로 활용된다.

시는 반려식물 전달 대상을 통합돌봄 노인 중 500명을 각 동에서 추천받아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된 노인들에게는 통합돌봄 서포터즈가 안부 확인을 위해 가정에 방문할 때 반려식물이 전달될 예정이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어르신들이 반려식물을 통해 분위기 전환 및 우울감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사회혁신 임팩트 스쿨 '알고 펀딩' 참여자 모집

전주시, 크라우드 펀딩 통해 자금 조달 역량 강화 · 수익 창출 방안 탐구활동 등 지원

전주시가 사회변화를 이끌 지속가능한 활동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펀딩 교육 등을 지원한다.

전주시는 1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금조달 방안 탐구를 위한 사회혁신 임팩트 스쿨 '알고 펀딩'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각자의 브랜드 스토리와 사회적 가치, 제품 또는 서비스의 매력 등을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자금을 조달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우선 시는 개인·커뮤니티·스타트업·소상공인 등 지역주체들의 크라우드 펀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브랜드 컨설팅 전문기업인 '스몰블랜더'를 통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크라우드 펀딩 교육 △브랜딩 △홍보마케팅 △상세페이지 디자인 등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3회 이상 참여자에게는 크라우드 펀딩 지원 심사 대상 자격이 주어진다.

시는 교육 및 워크숍 참여자 중 심사를 거쳐 우수 수료자(팀)를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된 5팀에게는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선정된 우수 수료자(팀)에게는 크라우드 펀딩 상세페이지 디자인 제작 및 광고, 팀별 멘토링 등이 지원된다.

이후 최종 선정된 5팀은 자체 크라우드 펀딩 전략을 수립해 직접 크라우드 펀딩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각 팀별로 크라우드 펀딩이 만들어 낼 사회변화와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자만의 사업화 전략을 탐구할 수도 있어 지역사회 주체의 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도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좋은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양식, 접수방법은 전주시사회혁신센터 누리집(www.jsic.or.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기자

"어르신 일자리 확대 위해 그린 배송 인프라 구축"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지훈 예비후보가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그린 배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8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생활패턴의 변화로 배달이 일상화됨에 따라 이를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해 그린 배송 인프라, 즉 동네별 배송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환경까지 생각한 정책으로, 치킨, 피자 등의 음식과 청과물 등의 상품을 어르신들이 도보나 자전거를 통해 배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배송 시스템은 시민들의 편안한 삶과 생활비를 절약을 위해 제시한 '15분 도시' 정책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어르신 일자리 정책이라고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이에 '15분 도시'를 위해 그린 5개 권역에 물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각 지역의 시니어클럽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배송 수수료를 낮춰 소상공인들의 그린 배송 시스템 참여를 유도, 주민 간 거리감까지 줄여주는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고 조 예비후보는 내다봤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는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서도 긍정의 효과를 불러온다. 하지만 공공의 영역에서만 확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더욱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도 다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린 배송 인프라는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15분 도시, 기후 위기에 적극 대처한 녹색도시와 일맥상통, 어르신은 물론 도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음식을 K푸드의 대명사로"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주음식 인증제 도입과 세계화를 추진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지난 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는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며 전주음식을 'K-푸드의 대명사'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 구도심을 미래 천 년 전주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시키겠다며 중점공약을 발표했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전주음식 인증을 위해 먼저 전주백반과 한정식, 콩나물국밥, 비빔밥 등의 표준화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증제'를 도입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표준화지침 정기교육 실시, 인센티브 제공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전주음식의 '맛과 멋 그리고 품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통일된 간판, 인증마크 부착을 비롯 매년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등 관리도 소홀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전주음식은 전주산 식재료'라는 원칙 아래 지역 농산물 사용을 권장,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울 방침이다.

전주음식의 'K푸드'화는 신설할 '전주음식세계화센터'가 주관하게 된다.

또한, 우 예비후보는 생기를 잃은 전주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살아있는 문화자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구도심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한 애물단지가 아니라 전주가 가진 문화자산"이라며 "고도 제한을 풀고 프랜차이즈 입점을 허용하는 등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또 하나의 전주 신도심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라감영 옆 부지에 재즈페스티벌 상설공연장을 짓고, 미래형 초가 선술촌 주막을 설치해 사람이 몰리고 젊음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그림이다.

"장난감도서관, 12개 사립도서관에"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장난감이 아이들 정서 발달에 좋다는 건 알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구입이 망설여져요." "장난감 유행주기가 짧아 아이가 쉽게 싫증내면서 버린 장난감도 수십개는 되는 것 같아요."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민선 4·5기 완주군수)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장난감 고민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임 출마예정자는 지난 8일 정책발표를 통해, 장난감도서관을 전주 12개 시립도서관 전체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출마예정자는 "0~5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난감 도서관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면서 "동네 어디서나 자녀의 장난감과 유아용품을 거의 무상으로 편리하게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주 소재 12개 시립도서관에 부설로 공간을 확보, 모든 동에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공간이나 부지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시 부지를 활용해 공영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한다는 복안이다.

새로 문을 열 장난감 도서관에는 각각 1,000여점의 장난감을 비롯해 다양한 아동도서, 놀이체험실을 갖추게 되며, 수유실, 교육실, 사랑방 등도 설치해 아이와 동반한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대여 시스템을 구축해 이동이 불편하거나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가족들에게 최소의 배송비만 받고 집으로 배달해 주는 택배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장난감 도서관들이 모두 개관하면 현재 7곳인 전주의 장난감 도서관·대여점은 모두 19곳으로 확대된다.

임 출마예정자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해 장난감 도서관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전주를 전국에서 가장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윤상 기자